안녕하십니까?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올미년 새해 희망차게 여셨는지요?

오늘날 불교는 가히 르네상스 시대라 해도 좋을 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피로감에 지친 서구인들이 대안적 삶을 모색하면서 불교사상에 주목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불교가 미래사회의 대안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년 성상을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현실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불교는 조선왕조의 억불정책과 일제치하의 질곡과 도전을 이겨내고 현대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해방이후 우리는 정화불사를 통해 수행풍토와 종단정체성을 확립하는 성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아픔도 함께 남겼습니다.

60년대 한국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화하였고, 인구의 80%가 도시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웃 종교가 도시로 몰려든 근로자와 빈민 등 약자를 대변하면서 급성장하였고, 그때 형성된 인적 자원으로 80년대 민주화과정을 주도한 것과는 달리, 이 시절 불교는 사회흐름을 제대로 읽지도 대응하지도 못하여 국민을 울곧게 보듬는데 한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불교의 사회역량이 크게 취약한 것은 이렇게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과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94년 종단개혁은 여러모로 한국불교에 큰 전기가 되었습니다. 종단운영에 삼권분립이 강화되고, 선거와 대의민주주의, 예결산제도 등 현대적 운영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신 한계도 명백하였습니다. 변화는 중앙종단에 치우쳐 교구·사찰로 확산되지 못했고, 원용살림의 공동체 전통은 약화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사를 일구기보다 외부에 의존하려는 폐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가려내어 공동체 안의 여러 문제들을 차분하게 성찰하고 한 발 한 발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총무원장을 맡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규와 혼란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사건의 앞뒤를 떠나 저부터 엮으려 참회하였습니다. 다행히 뜻있는 종단의 어른들께서 봉암사에 모여 중심을 잘 잡아 주셨고, 참회-안정-쇄신이라는 기조하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오던 전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부대중공동체를 살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자는 거룩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혜롭게 아픔을 함께 극복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뒤 4년 동안 종단은 변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사본부를 중심으로 야단법석, 생명평화 천일정진을 통해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하는 기운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찰 재정합리화와 운영위원회 강화, 전문 종무원 양성 등 불교 변화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예규 개정과 토지처분금 운용 개선 등을 통해 사찰 재산의 망실과 삼보정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승가복지 제도를 점검해가며 승가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직할교구에 인사고과제를 도입하고, 법인법 제정을 추진한 것도 공심이 바탕이 된 종단운영 풍토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대승불교의 전통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철도파업 등 분열과 대립의 현장에 뛰어들어 화쟁적 해법을 모색하였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무차대회를 열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화쟁 순례, 생명평화법당 개원 등과 같이 시민사회와 더불어 세상의 고통을 껴안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비록 역량의 한계도 분명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대승보살로 태어나고자 했던 소중한 시도였으며, 불교가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획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와 오류도 적지 않았습니다. 쇄신위원회에서 성안된 과제들 중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고, 크고 작은 종단내부의 문제를 화쟁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였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부덕의 소치입니다만, 앞으로도 종단의 체질과 풍토를 변화시켜 가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지금 혼돈과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냉소와 패배주의가 만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심을 중심에 두어 나를 낮추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내 편 네 편, 이 쪽 저 쪽을 넘어 사부대중의 지혜와 뜻을 모아 미래불교의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100인 대중공사를 이판과 사판, 승가와 재가, 노장청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탁마의 장으로 만들어 우리 종단과 불교가 도약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누구라도 셋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등한 대중공사의 일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아가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하여 대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중공사에서 논의되고 결의한 사안들이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에 적극 반영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도반이 되어 한국불교의 희망을 가꾸는 대작불사를 위해, 종단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크게 마음 내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청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내내 청안청락하십시오.

불기2559년 1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